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³²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If the ox shall strike with the horn a man servant, or a maidservant, he shall give unto their master thirty shekels of silver, and the ox shall be stoned.* ³³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And when a man shall open a pit, or when a man shall dig a pit and not cover it, and an ox or an ass shall fall in there,* ³⁴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살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the master of the pit shall repay; he shall pay silver to its master, and the dead one shall be his.* ³⁵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And when a man's ox shall strike the ox of his companion, and he die, then they shall sell the living ox, and they shall divide the silver of it; and the dead one also they shall divide.* ³⁶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Or if it be known that the ox was wont to strike with the horn from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and his master hath not watched him; repaying he shall repay ox for ox, and the dead one shall be his.* (출21:32-36)

선이나 진리가 거짓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면, 그 왜곡된 것은 반드시 진리에 의해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 진리는 교회에 있는 (*within*) 말씀에서 나온 진리이거나 말씀에서 뽑아낸 교리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고 인정

출21:32-36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인정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안으로는 들어가시지만, 사람이 모르는 것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사람이 그게 악이거나 거짓임을 배우기 전까지는 악이거나 거짓인 것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AC.9088)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9088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good or truth is being perverted by means of falsity, then that which has been perverted must be amended by means of truth; within the church by means of truth from the Word, or from doctrine which is from the Word. The reason why this must be so, is that truth teaches what is evil and what is false, and in this way the man sees and acknowledges it; and when he sees and acknowledges, he can then be

e amended. For the Lord flows into those things in man which the man knows; but not into those things which he does not know; and therefore He does not amend what is evil or what is false until the man has been instructed that it is evil or false.

이는 오늘 본문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입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중 ‘짐승의 입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He shall pay silver to its master)에 해당하는 주석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유전 악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전인자 속에는 오랫동안 조상들이 저지른 악업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이 있을 때, 생각은 그것에서 멀어지려 하는데, 반대로 의지는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지요. 그것은 바로 유전 악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악을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으로 속 사람을 일깨워주시고요,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속 사람이라 하는 내면의 의식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속 사람이 선과 악,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겉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겉 사람은 처음에는 속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동안에 겉 사람은 점차 속 사람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서는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보통 속 사람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겉 사람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와 소 임자의 관계 역시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소’는 겉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정이나 욕망 같은 것을, ‘소 임자’는 그 욕망을 다스리는 속 사람의 지성을 뜻합니다. 속 사람 안에는 지성이라 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이 겉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속 사람의 지성과 겉 사람의 욕망간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는 소와 소

임자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먼저 32절 말씀입니다.

³²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지난 시간에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28절)이라 했는데, 오늘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이라고 합니다. ‘종’은 겉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남종, 여종’은 겉 사람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을 의미합니다. ‘남종’은 겉 사람의 진리를, ‘여종’은 겉 사람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겉 사람의 진리와 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진리와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겉 사람 안에서 좋지 않은 애정이나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 좋지 않은 애정이 겉 사람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을 해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테면, 이기심이라든가 정욕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양인들은 그것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거기에 편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진리와 선을 파괴합니다.

※ 아래 예는 원본의 예 대신 제가 새로 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교회 다니는 어느 공무원이 특정 지역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사사로이 가족이나 지인 통해 헐값에 일정 택지를 미리 찜해두는 경우 라든가, 주말과 주일을 교회 섬기느라 영혼을 불태운 목회자가 모든 걸 마친 주일 밤, 골방 침대에 누워 부주의하게 TV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 성인방송이나 무슨 잔인한 액션, 공포, 호러물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부주의한 목회자들의 경우, 지방 무슨 집회 강사로 초대받아가서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갈 때 이런 시험에 자주 빠지는데요, 조심, 또 조심,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그 영적 후유증이 상당하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탈이 바로 우리 안의 선과 진리를 파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의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들로 쳐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겔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은화의 명칭입니다. 말씀에서 ‘은’(銀)은 진리를 뜻하며, 따라서 세겔 역시 내적 의미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의 임자는 걸 사람을 다스리는 속 사람의 지성이요, 상전은 속 사람 그 자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임자와 상전은 속뜻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소의 임자가 상전에게 은 삼십 세겔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악한 애정이 올라올 때, 속 사람의 지성이 잘 판단, 단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 제가 좋지 않은 욕망에 휩쓸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주님, 저의 애정이 선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한 애정이 아니었습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니다.’라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애정같이 보여도 사실은 자아에서 오는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소의 임자가 상전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 회개를 통해 본래의 분별력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은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으로 보상할까요? 회개할 때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은 삼십 세겔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특별히 ‘삼십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삼’(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실제적 결

심과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삼십 세겔을 주는 것은 완전한 회개와 분별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 누가복음 11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눅11:34) 주님께서서는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의 지성은 내면의 눈입니다. 눈이 밝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속 사람이 밝아지며, 겉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함께 어두울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소는 악한 애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소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악한 애정이 올라올 때는 진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돌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진리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말합니다.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진리라면 그 앞에서 악한 애정이 고개를 숙입니다. 다음 33절에서는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조금 전에는 좋지 않은 애정이 곧 사람의 진리와 선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서는 덮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덩이’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는 언제나 거짓을 받아들일 용의, 마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거짓에 관대한 것입니다. 제가 청주교회에서 목회할 때, 2부 예배 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각자 신앙생활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족 중에 격투기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좋지 않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삼가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태도는 구덩이를 열어 두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든 그것이 진리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덩이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끊어야 하는데 주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덩석덩석 술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의 경우가 구덩이를 열어 두는 경우라면,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술자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악과 거짓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에 관대하거나 자발적으로 거짓을 쫓아다니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상을 더 믿는 사람들이며,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곧 그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조차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로 계속 주님보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돈을 더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나 악에 대하여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이면 언제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의 편에 서게 됩니다.

※ 이것이 현 정치권, 특히 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분들은 현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 거대 의석수를 가졌으면서도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비윤리, 비도덕, 비애국적인 결정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요, 저렇게 많은 의원들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이 저렇게나 없을 수도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때, 속 사람의 분별력이 없어지고 선과 진리가 변질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관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지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가 변질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그 목적과 그 방법의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 그 자체를 위해 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사로운 것이 섞여 목적이 불순해지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는 방법 역시 왜곡됩니다. 이것이 선과 진리가 변질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삶의 선을 뜻하고, 나귀는 삶의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³⁴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의 주인이 소나 나귀의 임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덩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유혹과 싸우지 않고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 혹은 자발적으로 거짓과 악을 삶 속에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리에 어긋난 선택을 되풀이하다 보면 삶의 진리와 선이 변질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질된 진리와 선이 구덩이에 빠진 소와 나귀입니다. 이럴 경우, 구덩이를 열어 둔 사람은 소와 나귀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을 하는 것은 앞 절에서 소의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진리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 행해지는 선과 진리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변질되었던 진리와 선이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지른 과오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행한 악과 거짓은 그대로 우리 내면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면 악한 것,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악과 거짓을 뜻하는 이유는, 사람은 진리를 생각하고 선을 의도할 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과 거짓을 삶 가운데 용인하게 되면 그 악과 거짓은 우리 인격 가운데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주님께 의해 씻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35절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소가 소를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에서는

³⁵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말씀에서 ‘사람의 소’라 할 때, ‘사람’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소’는 애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은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애정이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수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없이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 또한 다양합니다. 진리의 종류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종류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진리 안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애정이 들어있는데, 그 애정들이 서로 충돌, 다른 애정을 죽이거나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은 좋지 않은 애정이 선한 애정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자아에서 오는 애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아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려면 그 애정들이 서로 다투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애정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조화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애정은 자주 다툽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선한 애정까지도 죽이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입니다. 그럴

경우, 주님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라 하세요. 여기서 ‘살아있는 소’는 선한 애정을 죽인 악한 애정입니다. 그리고 ‘팔아’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소를 팔아’는 악한 애정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를 판 값을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를 판 값’은 악한 애정을 통해서 얻은 진리입니다. 애정이 악하면 그 애정으로부터 얻은 진리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여기 ‘나누라’는 것은 그 진리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나눈다’는 의미는 보통 파괴하는 것,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을 나누는 것’은 거짓 진리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누는 것’이 파괴하고 없애는 것을 뜻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군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주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으신 옷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가장 바깥쪽의 진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가 주님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고 할 때, 나누는 것은 유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왜곡, 결국 파괴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나누는 것은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를 판 값을 나누는 것은 악한 애정으로부터 획득한 진리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애정들이 있고, 그 애정으로부터 얻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진리들은 모두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소에 받쳐 죽은 소가 선한 애정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죽은 소는 선한 애정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이해한 것이고, 속뜻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죽은 소는 말 그대로 죽은 소로 이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소는 악한 애정입니다. 좀 전에 죽은 소는 악한 애정에 의해 죽은 선한 애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악한 애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애정이 파괴되어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지옥으로부터 악한 애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소는 선한 애정이 아니라 악한 애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주님께서서는 그 악한 애정을 버리라 하세요. 죽은 소를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속뜻을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논리의 연관성으로 보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35절 말씀의 의미를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선한 애정을 파괴하는 악한 애정이 있을 때, 그 악한 애정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악한 애정을 통해 획득한 진리는, 그것 역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애정이 죽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악한 애정이 등지를 틀게 되는데, 그 애정 또한 밀어내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밀어내서는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는 수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애정에는 선한 애정이 있고, 악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애정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악한 애정은 인간의 자아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정들끼리 서로 충돌, 하나의 애정이 다른 애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선한 애정이 악한 애정을 죽이는 일을 경계하라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진리를 통해 어떤 것이 선한 애정이고, 어떤 것이 악

한 애정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믿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성의 애정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거듭남의 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16:13)

아멘

원본

2018-01-28(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26(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